



효자2동 통장협의회, 장미터널 봄꽃 식재 시민 힐링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통장협의회(회장 황혜란)는 지난 19일 상간고 옆 장미터널에 봄꽃 식재행사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송정중앙로 상간고 동편 옆담 200m의 장미터널은 2015년에 조성돼 매년 3월이면 개나리꽃, 5월에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지 않는 곳이다.

이날 회원 30여 명은 장미터널 주변에 괜지 등 봄꽃을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주에 1차적으로 잡초 제거와 낙엽 및 쓰레기 등을 장미터널 주변을 정비했다.

박봉균 효자2동장은 “효자2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통장협의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으로 살기 좋은 효자2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계농협·농가주부희망드림봉사단, 반찬 나눔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회장 전계자)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장길환)와 함께 22일 장계농협에서 친찬찬(饌贊찬)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친찬찬(饌贊찬) 반찬나눔은 (사)농가주부모임 칭립 아래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건강도 행복도 가득 채운 밀반찬으로 취약계층을 돋는 의미가 있다. 이날 장계농협 농가주부 회원들은 좋은 재료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직접 독거노인과 취약농가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반찬나눔 봉사는 신용카드사회공헌단의 후원으로 (사)농촌시립법국민운동본부가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승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심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027-9417
호자지사
010-86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655
송천지사 256-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신지사 010-6789-0038
의신지사 6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6-1227
완주지사 246-6855
남원지사 632-095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공동주택 이동상담 활성화 협약 체결

경력단절여성·중장년·노인 대상 주1회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아 센터장·가 전주시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22일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북노인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전주시 소재 아파트 등 총 11개 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내 공동주택 찾아가는 이동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중장년,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직상담과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정부지원제도 등 정보 사각지대 밟고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센터방문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정보제공 서비스 차원으로 추진됐다.

장호봉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중 취업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를 방문해서 상담해야 하는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매주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나 작은 도서관, 노인정 등을 통해 이루어질 대상별 맞춤형 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지사장은 “전북지사는 주기적인 방송과 인



쇄물 등 사전 흥보를 통해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 기관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여성·중장년·노인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과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울라, 4월 1일부터 주1회 본격적인 찾아가는 이동상담이 추진될 예정으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부지원정책 등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이동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 063)254-3602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김종승 교수팀, 우수연제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이비인후과 김종승 교수팀이 지난 6일 열린 제32회 삼남비과 학회에서 우수연제상(발표자: 전공의 고지훈)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지훈 전공의는 이번 학회에서 반전성 유두종으로부터 기원한 사골동 평평세포암종 내시경 수술 중례를 보고했다. 이 중례를 통해 진행된 병기의 사골동암 및 비강암 환자에 대해 내시경적 수술로도 충분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함을 증명했다.

반전성 유두종은 비강과 부비동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피 양성 종양이며, 재발률이 높고, 5~13%에서는 악성화 가능성이 있다. 뼈를 파괴하거나 재형성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 및 주기적 경과관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비강 막힘 및 비강 내의 종물 등의 소견이 있을 때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종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발표는 사골동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최소 침습적인 내시경적 수술 방법을 제시했고, 이에 내시경 부비동 수술 의학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 받았다.



/김윤상 기자

한국서부발전, 코로나19 재난극복 위해 4억 500만원 기탁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은 22일 전북도 지역 코로나19 재난극복협력사업비로 사용해 달라며, 4억 5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이병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서부발전(주)은 발전본부가 위치한 4개 지역에 코로나19 재난극복협력 6개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전북은 발전본부가 있는 군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 사업은 코로나 예방, 치유, 극복 사업으로, ‘코로나 예방 사업’으로 대인소독기 지원, 국민안심키트, 선별진료소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

‘코로나 치유 사업’은 코로나 완치자 및 해제자 등 여행경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상가 무상방역, 희망에너지 지원(전기요금 지원) 등이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사업’으로는 생필품 키트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

6개 사업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등 도내 5개 협력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이 중 코로나 완치자 및 해제자 등 여행경비 지원사업은 현재 전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접수중이다.

/유호상 기자

김효근 신임 대한자전거연맹 부회장 선임

전북 자전거연맹 김효근 전 전무 이사가 대한자전거연맹 부회장에 선임됐다.

김효근 부회장은 전라고, 군산대를 졸업하고, 1991년도에 동양제철 화학사업을 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전주시청 사이클감독 재직시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지도력을 발휘,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동했다.



/장은성 기자



평화2차 골드클래스, 아이스팩 재활용 ‘앞장’

전주 평화동 소재 한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데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주 평화2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대표 임종완)는 지난 20일 단지 내에 총 6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과 함께 아이스팩 수거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아이스팩이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변기, 싱크대로 흘러가 환경오염을 일으켜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스팩 수거함의 경우 등 대표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모아 설치됐다. 입주자대표회에서는 한 기구당 5개 이상의 아이스팩을 갖고 오면 장바구니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펼쳤다. 추후에는 아이스팩 분리수거 인증시장을 올리는 세대에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모인 아이스팩은 세척 및 소독작업을 거쳐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평화2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입주민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품 쓰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컵라면 줄이기 ▲재사용하기 ▲입은 이메일 삭제하기 ▲물을 아끼 쓰기 등 일상 속 수칙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완 대표는 “이번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 중소상인 지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운동이 인근 주변 아파트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